"잠자리 들기 전 내게 익숙한 불보살 칭명"

■ 이제는 염불시대 〈下〉 염불의 생활화 방편

관세음보살·지장보살… 임신부 심리 안정 태교에도 효과

경전명 염해도 좋고 '원불' 봉안은 수행 성취에 유익

동국대 선학과 강사인 조계종 교육아사리 정운스님은 대학생들에게 '염불치유법'을 선보여 호응을 받고 있다. 종교적 수행보다 내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운스님의 염불법은 우선 자기 이름을 30초 정도 나직이 반복해서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불보살이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를 '칭명(稱名)'하는 학생들을 향해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뒤 부모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짓기 전에 무척 고심했을 것이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어야 평생 행복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며 최고의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불렀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의 기대치에 맞게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높여라." 정운스님은 스님이 직접 하고 있는 염불수행도 소개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휴식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들이쉬는 호흡에는 '아미', 내쉬는 호흡에는 '타불'을 염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염불은 산책을 하며 걸을 때에도 적용된다.

정운스님은 "염불은 정토종에서 언급하는 '아미타불'에 한정하지 않는다"며 "아미타불이든 석가모니불이든 관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평소 자신에게 익숙한 불보살의 명호를 칭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이나 〈나무묘법연화경〉, 〈마하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자기가 소의경전으로 삼은 경전명을 그대로 염해도 상관없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상스님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칭명(稱名)염불이 태교에 유익한 포교방안이라고 제안한다. 법상스님은 "부모와 태아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밝은 미래를 확산시킨다"며 "〈관세음보살보문품〉과 〈천수경〉의 10원6형과 신묘장구대다라니 등은 특히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신라의 고승 원효스님도 조롱박을 두드리면서 아미타불 성호를 불러 삼국통일 이후 불안한 민중에게 안정을 도모했고 염불의례와 수행을 통해 위안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염불은 일상화 생활화가 비교적 용이한 수행법이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개념으로 일하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걸으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다. 글자를 몰라도 불보살을 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을 주기 때문에 실버포교방안으로도 적격이다.

염불이 차츰 대중속으로 파고들어오면서, 최근 서점가엔 염불 관련 서적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위앙종의 제9대 법손인 선화상인은 염불법문집 〈서방극락이 그대의 집〉(민족사刊)에서 "염불은 누구든지 가장 쉽게 닦을 수 있는 법문"이라고 말하면서 염불수행의 수승한 공덕과 구체적인 염불법까지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자성미타(自性彌陀) 염불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무주선원장 본연스님도 〈미타행자의 편지〉(담앤북스刊)를 통해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의 생활화를 강조한다. 이외에도 〈천수경〉의 핵심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송하면서 선정을 연마하는 일산 덕양선원 신도들의 염불수행체험기를 모아 엮은 〈대비주 수행의 힘〉은 번뇌와 역경을 수행으로 극복한 불자들의 간절한 구도기가 실려 있다. 경기 광주 관음선원장 준수스님이 강설한 〈금강경, 위대한 명상〉(도반刊) 역시 40여년간 염불수행에 매진한 스님 특유의 염불과 명상법으로 금강경을 강해한 독특한 염불명상집이다. 준수스님은 "염불은 고(苦)가 소멸되는 최상의 불교수행법"이라며 "불자들은 부처님을 향해 갈구하는 수행이 아닌, 자기를 향해 거듭 염불해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켜 불법(佛法)의 진리를 자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불수행을 생활 속에서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해 '원불(願佛) 보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성운 조계종 의례실무위원은 "원불 봉안이 없으니 소청과 봉안과 예경이 관념화되어 구상성이 떨어진다"며 "생활 속 염불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원불은 종교적 신심과 수행성취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염불은 부처님을 향해 갈구하는 수행이 아니다. 자기를 향해 거듭 염불해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켜 불법(佛法)의 진리를 자각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글 천수경을 독송하는 불자들.

불교신문 자료사진

승가 창의적 콘텐츠 산실

조용헌 교수 불교포럼서 '통도사 신화' 주제 강연

"불교가 전래되면서 용(龍)은 고승에 의해 제압된다. 말 안 듣는 용은 쫓아내고 말 잘 듣는 용은 데리고 쓴다. 용은 부처를 지키는 신장, 즉 보디가드가 된 것이다." 조용헌 원광대 교수〈사진〉는 불교포럼이 지난 23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에서 연 제12차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통도사에 얽힌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통도사 곳곳에 용의 신화가 살아있다며 사찰과 용의 관계에 대해 소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농경사회에서 물을 지배하는 용신(龍神)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설에 의하면 통도사 금강계단 자리는 원래 늪지대였다. 늪지대를 흙으로 메워 금강계단을 만든 것이다. 왜 물이 고여 있는 자리에 성지를 지었을까. 이곳에 용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즉 통도사는 용이 지배하는 터였던 것이다. 자장율사는 도력을 써서 여덟 마리의 용들을 쫓아내고 절을 짓는다. 마지막 한 마리는 스님에게 항복하고 절을 지키는 신장으로 남았다는 창건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조 교수는 "자장율사가 터를 잡으면서 그동안의 토착신앙이었던 용 신앙에서 불교의 부처 신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용이 살던 지점에 법당을 지은 것은 자연스러운 전환"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극락정토로 중생들을 건네주는 반야용선이 토착신앙과 불교의 이상적 조화를 이룬 대목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가장 안전하게 망자를 건네주는 배를 '지혜의 용이 끄는 배'라고 생각했다"며 "불교의 사상체계 속에 자연스럽게 포섭된 경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한국의 절들은 판타지 소재와 연결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며 승가야말로 창의적 콘텐츠의 산실임을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해인사가 세월호 희생자 지원과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 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에 2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기금 전달 모습. 왼쪽부터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돈관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세월호 희생자·아프리카 학교 '성금'

교구본사주지협의회·해인사 아름다운동행에 2000만원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세월호 희생자 지원과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에 정성을 보탰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돈관스님)는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2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회장 돈관스님과 재무간사 원경스님은 "약소하지만 기금 전달에 동참하게 됐다"는 뜻을 전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8일 제4교구본사 월정사에서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지원사업과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기금을 마련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본사와 말사 차원에서 기금 전달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주지협의회에서도 기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세월호는 특별법을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탄자니아 학교 건립에 본사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선해스님)도 지난 24일 기금 전달식을 갖고 아름다운동행에 2000만원을 전달했다. 해인사가 전달한 기금은 사중 스님들을 비롯해 산내 암자에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세월호 희생자 지원과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각 1000만원씩 사용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본·말사 주지 인사

(7월23일자)

효림스님
청양 정혜사

진광스님
대구 금강사

'학교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김하영 기자의 **현장에서**

hykim@ibulgyo.com

전시관 같은 공간 한 가운데 어린이 두 명이 투명상자가 갇혀 있다. 상자를 둘러싼 어른들은 아이들을 감상하거나 사진기에 담기 바쁘다. 포스터의 한 장면이다. 포스터에는 '학교는 관광지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이 포스터는 캄보디아의 한 학교 정문 쪽에 붙어 있다.

학교 앞에 이같은 포스터가 내걸린 이유는 뭘까. 이 학교는 국제구호단체인 로터스월드가 교육 및 주민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에 위치한 초·중학교다. 로터스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들이닥치는 통에 수업에 방해가 돼 포스터를 걸고 출입문을 막았다고 전했다. 관광객들은 여행사 인솔아래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우리나라 유명 여행사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관광프로그램이었다. '나눔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다른 한국구호단체에 기부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이다. 좋은 취지인 듯하나, 학생 수업을 방해하면서까지 학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문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상품 설명 문구다. '헌 옷가지나 신발 등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준비해 현지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보다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여행사가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신성한 수업시간에 함부로 난입할 수 있고, 헌 옷이나 안 쓰는 물건을 줘도 고맙게 받는다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불과 60여 년 전 우리도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았다. 미군을 쫓아다니며 '기브미 껌, 쪼꼬렛'을 외쳤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다. 그 당시 군인들은 껌을 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관광객들은 캄보디아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캄보디아 아이들의 밝은 미래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지구촌이라는 마을에서 앞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식이자 미래다. 내 자녀의 학교에 함부로 들어가 사진을 찍을 것인가? 헌 옷을 줄 것인가?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중국 서안 불교성지순례 동참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는 여러 동문 스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동문회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지난 정기총회(2013년 10월 29일)에서 결의된 성지순례로 "당으로 떠난 구법승을 찾아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순례는 오는 9월 12일부터 16일(음 8월 19일~2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세계 4대 고도(古都)로 꼽히는 도시 서안에서의 역사탐방, 현장 · 혜초 스님 등을 통해 세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중국불교, 도교 선인들의 수도지 순례를 하면서 동문 선후배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기2558(2014)년 8월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정우 합장

| 내 용 | 중국 서안 불교성지순례 4박 5일
| 기 간 | 2014년 9월 12일(금) ~ 16일(화)
| 준 비 물 | 여권, 두루마기, 기타 순례에 필요한 물건
| 동 참 금 | 서울출발 155만원 / 부산출발 170만원(부산/인천 왕복 국내선 포함) • 동문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37-04-003558(해인사승가대학동문회)
| 구비서류 | 여권 사본(법명과 휴대폰 번호 기재), 동참신청서, 신청금 50만원
| 접수기간 | 8월 18일(월)까지
| 접수신청 | 동문회사무실 전화 02)720-8113 팩스 0505)575-7767 → 여권사본 팩스 제출 : 중국대사관 제출용(깨끗하게)
| 기 타 | ① 동참 신청서 양식을 원하시는 회원은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능하시면, 각 기별로 취합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별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4년 동산불교대학 45기 신입생모집[2년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9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1년차	과 목	1. 근본불교 2. 반야사상 (반야심경.금강경), 3. 유식과 명상 4. 불교사의 전개 (인도.중국.한국), 5. 대승불교총론 6. 법화경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주명철교수
2년차	과 목	7. 밀교사상과 천수경, 8. 아미타경과 불교의식, 9. 화엄경 10. 불교개론, 11. 불교문화와 포교 (불교미술.다도), 12. 선불교
	교수진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김형준교수, 정엄스님,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 불교관련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 2일, 불교미술학과 9월4일, 선禪명상학과 9월 4일]
※ 불 교 대 학 원 개강 [9월 2일, 9월 4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 6일, 범패의식반 9월 3일]
■ 모집인원(불교학과) | 15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5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4년 6월 15일부터 ~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